

1. 홍준표 시장 임기 1년은 대구시 시정은 퇴행하고 홍준표 시장은 폭주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신청사 이전 등 대구 시민의 숙원과 사회적 합의가 하루아침에 파탄나고, 참여도 토론도 없는 제왕적 독주가 판을 쳤다. 시장은 적대와 분열의 중심에 있고, 공무원들 입을 닫고, 지켜보는 시민만 부끄럽고 속 터지는 대구시가 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평가 리포트에서 ‘퇴행과 폭주의 15장면’으로 정리하였다.

홍준표 시장 1년, 퇴행과 폭주의 15장면	
①	시민건강 최후 보루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②	시정 혼란 불리온 졸속적 공공기관 통폐합
③	공론무시 의회무시 신청사이전 원안 파기
④	비판하면 구독중단 취재거부 언론 재갈물리기
⑤	골목상권 위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⑥	전국최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⑦	시정의 사유화, 대구시 유튜브 정치홍보 매체로 전략
⑧	시정의 사유화, 측근 특혜 정실 인사
⑨	시청이 왕궁(?), 시장 맘대로 집회금지 출입금지
⑩	시장이 결정, 시민은 따르라, 권위주의의 부활
⑪	시장이 사령관(?), 행동대장(?) 폭군 연상시키는 권력 남용
⑫	본분 망각한 하명감사, 감사위원회 독립성 추락
⑬	시장이 적대와 분열의 중심에, 시민 통합 위협
⑭	홍분하는 시장 복지부동 공무원, 시민 불만 증폭
⑮	시정보다 정치, 몸은 대구에 마음은 서울에

2. 홍 시장 1년 대구시정에는 민주와 인권, 소통과 참여, 자치와 협치 등 지방자치의 필수 가치들이 실정되고, 권위주의와 사유화, 제왕과 우민정치, 적대와 분열의 독소들이 만개하고 있다.

퀴어축제 때 수백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경찰의 공무집행과 대결하는 모습은 용역 깡패단의 행동대장을 연상시켰으며, 대구 시청이 왕궁인양 시장 맘대로 출입금지, 집회금지를 남발하는 것은 누구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폭군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시정혁신은 오직 비용 절감에만 매몰된 막무가내 구조조정이었고, 조직과 인사는 정치적 측근에 대한 특혜와 정실 인사에 불과했다. 이제 대구시에는 늘 흥분하며 갈등을 자초하는 시장만 보일 뿐 관료주의의 장점마저도 사라지고 냉소와 무기력, 복지부동만 판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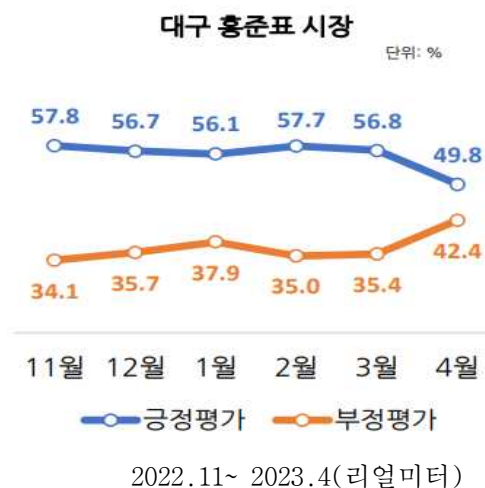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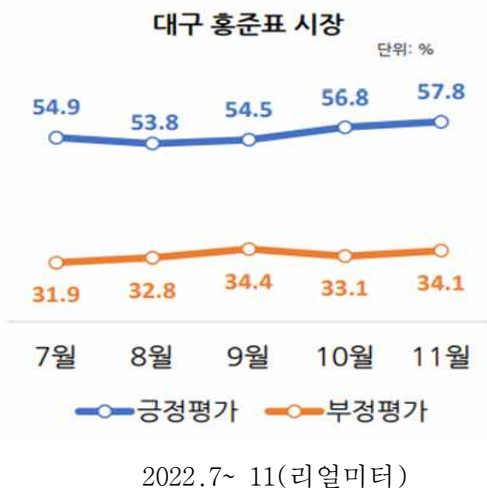
실종되는 공공가치	자라나는 반자치 독소
민주와 인권 소통과 참여 자치와 연대	권위주의 일방과 독주 기업주의

정치와 협치 토론과 공론 생태와 환경 법치와 공정	사유화 제왕과 우민정치 적대와 분열 정실과 측근
--	---

3. 이러니 대구 시민의 평가가 좋을 리 만무하다. 달서구민, 북구주민, 동구주민 등 곳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흥 시장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흥 시장 시정 1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긍정평가율이 56.8%나 된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대구 시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기	권영진		홍준표		조사기관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민선 6기 1년(15.6)	47.1%	24.1%			리얼미터
민선8기 1년(23.6)			56.8%	38.9%	리얼미터



권영진 전임 시장 취임 1년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 전 시장은 긍정 평가도 낮았지만 부정평가도 크게 높지 않았다. 반면 흥 시장은 긍정평가가 높지만 부정평가는 권 시장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보수의 심장에서, 야당에 유의미한 경쟁자도 없는 조건에서 56.8%의 지지율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정평가 38.9%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취임 후 추이를 보면 이번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크게 반등했지만 전체적 흐름은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애써 감추고 있다. 홍 시장이 자성하지 않고 퇴행과 폭주를 계속한다면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런데도 홍 시장은 시민의 눈치를 살피고, 시정에 전념하기는커녕 중앙정치에 관심이 더 가 있다. 많은 시민이 홍 시장은 ‘몸은 대구에, 마음은 서울에’ 있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게시물 성질별 횟수(22.7~ 23.6)				
대구시정 (시정에 대한 일반적 발언)	대구시정 (시정 갈등 현안에 대한 발언)	중앙정치 (정부행정 및 정당정치 관련 발언)	기타 (사생활 잡담 등)	합계
65(17.5%)	64(17.3%)	178(48%)	63(17.0%)	370

홍 시장 페이스북 게시물 성질별로 나누어 보니 370회 중 중앙정치 관련 글이 178회로 48%나 차지했다. 시정과 관련된 글도 35% 정도 되지만 절반은 홍 시장이 언론, 시민단체, 경찰 등과 갈등하면서 쓴 글이 많았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일반적 글을 사실상 65회(17.5%) 불과했다. 홍 시장이 국민의 힘 고문을 지냈고,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해도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반면 민선 8기 임기 초 5개월간 7대 특·광역시 시장의 공무 일정을 비교해 본 결과 홍 시장은 인천시장과 함께 공무일정 수행 횟수가 가장 적었으며, 주말 일정수도 가장 적었고, 일정이 없는 날도 가장 많았다.

홍 시장의 관심이 대구 시정보다 중앙정치에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다. 홍 시장, 이제 시정의 목적과 시장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5. 홍 시장의 이러한 퇴행에 앞장선 공무원,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 쿼어축제 때 공무원 수백명을 동원하여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에 앞장선 이종화 부시장, 공항건설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이종헌본부장, 대구시 유튜브를 시장 홍보매체로 둔갑시킨 김민정 담당관 등이다.

교체해야 할 대구시 공무원 3명	
이종화 경제부시장	퀴어축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에 앞장
이종현 신공항건설본부장	공항건설 경험 지식 부족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부장 직책 맡지 못함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	대구시 유튜브 흥 시장 정치홍보매체로 둔갑시킴

흥 시장은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기 힘들 정도로 1년 내 수차례나 인사를 단행해 시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측근 인사들은 알차게 챙겼다.

임기 1년을 맞은 지금 이후로도 이런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흥 시장과 임기제 공무원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정은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흥 시장이 대구시정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부터는 부적절한 공무원을 교체하고, 시정이 무엇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시장에게도 다른 의견을 말하고, 직책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제 자리에 기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일상이 고단하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임금만 안 오른다, 서민층의 실질 소득은 더욱 줄었다, 그나마 기대했던 정책들이 흥 시장 취임 후 뒤 집어져 기대감마저 없어졌다, 대구시에는 뭘 얘기해도 안 통할 것 같다 등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흥 시장 스스로도 자성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정책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을 찾고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 전문가를 만나야 할 것이다. 끝.